

가장 아름다운 악장(乐章)

신문예술단은 금년 5 월 2 일 캐나다 칼자리 금희극장에서 마지막공연을 원만히 끝마쳤다. 2천여명 관중들은 가장 아름다운 중국전통문화에 감동되어 박수를 치면서 오랫동안 장내를 떠나지 않았다.

캐나다에서 사업하고 있는



대만석
유탐사
기사인
허작겸
선생

(윗 사진)은 감격해 말했다.

《이렇게 인심을 감동시키는 초수준의 공연을 평생 보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당나라는 찬란한 문화와 바다같은 포부에 의거했는데 오

늘의 중국을 다시 세계의 강국 대렬에 서게 하자면 무엇에 의거해야 하겠니까? 초만원을 이룬 오늘 저녁 신문만회는 나에게 답안을 주었습니다.》

칼자싱대학 철학계 교수인



푸스트—워
크박사(옆 사
진)는 말했다.
《신문만회
가 이렇게 깊
고 풍부한 철

학적 내포가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신문은 가장 높은 예술성, 가장 정채로운 예술기교, 가장 아름다운 사회철리를 한데 융합시켰습니다. 이렇게 미묘한 융합은 사람들을 한없이 감탄하게 했습니다.》

아십니까?



5 월 13 일은 전 세계 파룬따파 날이다. 16년 전 오늘 파룬따파가 중국대륙에서 공

개적으로 전수되어 이미 80여 개 나라에 널리 보급되었고 1억이 되는 사람들이 “쩐싼런”을 수련하여 신체가 건강해지고 도덕이 승화되었다. 해마다 각 나라 파룬궁학원들이 현지 민중들과 함께 이 위대한 기념일을 기꺼히 경축하고 있다.

중공의 박해를 제지할 것을 37 만명이 서명



금년 5 월 1 일, 홍콩에서 중공박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시위행진을 거행했다. 집회에서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CIPFG)에서 주최한 전세계반박해서명활동에 호응하여 37 만여명이 서명했다고 발표했으며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즉시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사이판 등불절에 대법의 아름다움을 찬양



지난 4 월 24 일부터 27 일 까지 북태평양마라아나제도의 수부 사이반섬에서 제 27 차 등불예술평화활동에 참가한 파룬궁 학원들은 파룬궁 5 조공법을 표현했고 “쩐싼런미술전람회”를 열었으며 진상자료를 배포했다. 수많은 유람객들은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으며 파룬궁 박해진상을 알게 된 중국인 28 명이 “3 퇴”성명을 했다.

나라에서 련공하지 못하게 하는데 왜 여전히 련공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련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리유는 파룬궁은 “사교”, “불법”이라는 것이다. 리홍지사부께서는, 학원들은 “쩐싼런”을 수련하여 개인이익의 집착심을 제고하며 남을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거듭 교시했다. 그러므로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다. 파룬궁을 련마하면 나쁘게 된다는 이른바 안건들은 죄다 중공이 악의적으로 위조한 것이다. 파룬궁수련자들은 파룬궁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품덕을 제고시키며 사회에 유익한 좋은공법이기에 때문에 여전히 련공하고 있다. 련공은 불법이 아니라 신앙자유이고 헌법규정에 따른 신앙자유는 반드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사회생한 갓난애



만 1 살인 송송(松松)이는 지난해에 출생하여 35 일만에 얼굴에 피가 났다. 현지 대경병원에 가서 CT 검사를 해보니 뇌주혈관 3 곳이나 터져 출혈했다. 의사는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해도 불구가 됩니다.》라고 말했다.

집에 돌아 온 송송이는 10 분에 한번씩 경련을 일어났고 젖도 빨수 없었으며 얼굴이 누렇게 되어 아무런 방도도 없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 온 파룬궁학원 이모는 리홍지선생님의 설법테이프를 띄워 송송이더러 듣게 했다. 3 일째 되는 날 과연 기적이 일어났다. 송송이는 경련도 일으키지 않고 젖도 빨수 있으며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송송이를 데리고 할빈대병원에 가서 검사했다. 소아과 교수는 CT 사진 2 장을 대조해보고 나서 깜작 놀라며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기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후 대경병원에 가서 재차 CT 검사를 해보니 완전히 정상이었다. 송송이는 지금 건실히 자라고 있다.

또 다시 사라진 은시 《관음당》 물

은시(恩施)만보 금년 5 월 2 일 소식에 의하면 호북 은시시백과향 《관음당》(“观音塘”)의 8 만 리방메터나 되던 고요한 푸른 물이 금년 4 월 20 일 오전 7 시에 갑자기 소용돌이 치면서 요란스럽게 울리더니 5 시간도 안되어 죄다 사라졌다. 현지 주민들은 모여들어 이 희기함을 구경했다.

《백과향지》기재에 의하면 1949 년이후 3 차례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중공의 나라 탈취한 1949 년, 중공의 “3 거인”모택동, 주덕, 주은래가 사망된 1976 년, 그리고 “6.4”천안문대 학살 1989 년이었다. 올해 《관음당》 물이 사라진 것은 2008 년도가 중국력사상에서 재난의 한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소실된 은시 《관음당》 물

그림

고아의 눈물

작자: 대법제자 동석강(董锡强)

중공의 박해로 무수한 파룬궁학원들이 집도 잃고 가족도 잃었다. 그림중의 어린이는 중공의 박해로 죽은 아빠와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찡해나고 눈물이 핑 도는데 부모의 고향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다.



박해로 사망된 범덕진

료녕성호로도시 파룬궁학원 범덕진(范德震)은 금년 2 월 25 일에 수중헌 610 사무실, 공안경찰들에게 납치되어 수중간수소에 갇혔다. 금년 4 월 20 일 아침 7 시 50 분경 간수소에서 박해로 사망되었다. 오후 4 시가 넘어서 통지를 받은 가족들은 이튿날에 그의 유체를 보겠다고 여러번 요구했으나 악인들은 기어코 밤에 보라고 위협했다. 그의 유체를 보니 얼굴은 뼈뿔어지고 이를 악물었고 배엔 여러곳이나 어혈이 쳐 있었다.



.....**박해**.....**폭로**.....**연변박해소식**.....

- 연길시파룬궁학원 최옥자(崔玉子)는 금년 4 월 16 일 악경들에게 납치되었고 집수색당하여 컴퓨터와 프린트를 빼앗겼다.
 - 룡정시조양천진 파룬궁학원 가장지(贾长芝)는 삼도에서 진상을 알리다 악경들에게 납치되어 지금 북대간수소에 갇혀있다.
 - 훈춘시파룬궁학원 리희련(李喜莲)、조전신(赵殿臣)은 금년 5 월 8 일 악경들에게 납치되었다.
 - 화룡시 8 가자 파룬궁학원 양소홍(杨素红)은 거주해 있는 연길시세집에서 하남가파출소 악경들에게 납치되었고 집수색당했다.
 - 금년 5 월 10 일부터 올림픽이 끝날때까지 왕청현 악인들이 파룬궁학원들을 붙잡아 세뇌반에 보내려고 음모하고 있다.
- 선악보응은 하늘의 뜻이다. 모든 악인들은 빨리 각성하여 무고한 파룬궁학원들에 대한 박해를 즉각 정지하라.